

책스며든
독후 활동지



작은 씨앗 하나가

클레망스 사바 글 | 테레사 아로요 코르코바도 그림 | 이경혜 옮김

● 책 소개

편견의 울타리를 넘는, 작은 씨앗들을 위한 응원가

모든 일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던 한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작은 싹을 틔우고 기뻐하지만,
이내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뽑혀 버려집니다. 그리고 행운처럼
만나게 된 한 어린 소녀. 작은 싹은 아무런 편견 없는 소녀에게서 태어나
처음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 느끼지요.
오랜 시간 둘은 깊고 따뜻하게 교감하며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열어
찾아갑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함께, 어린이들에게는 '나답게
자라는 용기'를, 부모 세대에게는 '떠나보내는 사랑'까지, 모두의 마음에
다정한 녹색 바람의 감동을 오래도록 남기는 그림책입니다.

● 주제어

- # 다양성
- # 생태 감수성
- # 성장
- # 독립

● 교과 연계

- 국어 1-2 4. 감동을 나누어요.
2-2 2. 서로 존중해요.
3-2 1. 경험과 관련지으며 이해해요.
4-2 1. 비교하며 읽어요.
5-2 7.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요.
- 도덕 3학년 1.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학년 7.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4학년 7. 자연은 소중해요.
6학년 2. 다름을 존중하는 우리

어디로 갈까요?

표지 그림을 보세요. 씨앗이 바람에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씨앗이라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고 싶은 곳 :

• 이유 :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꽃밭의 꽃들은 작은 싹을 아는 체도 안 했어요. 정원 주인은 뽑아 버렸고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꽃들과 정원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 주세요.

꽃들에게

정원 주인께

무엇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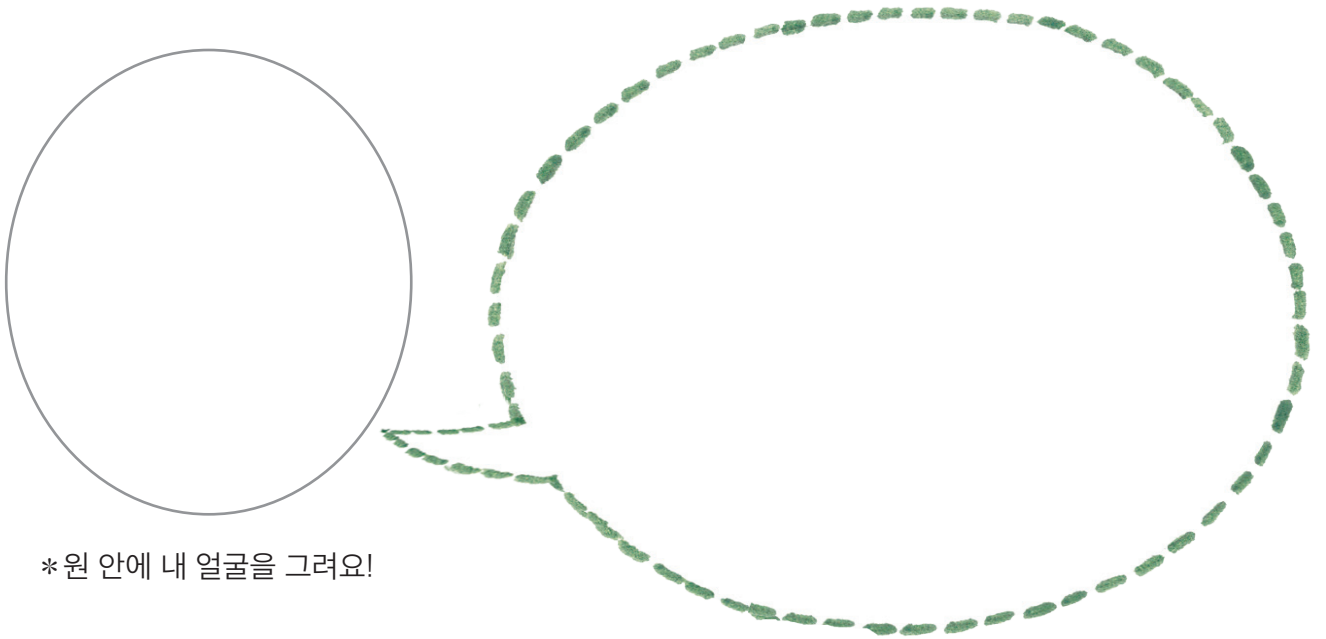
땅속에는 바람과 새와 개미들이 데려온 씨앗들이 있어요.

갖가지 모양의 씨앗을 그리고, 모두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상상해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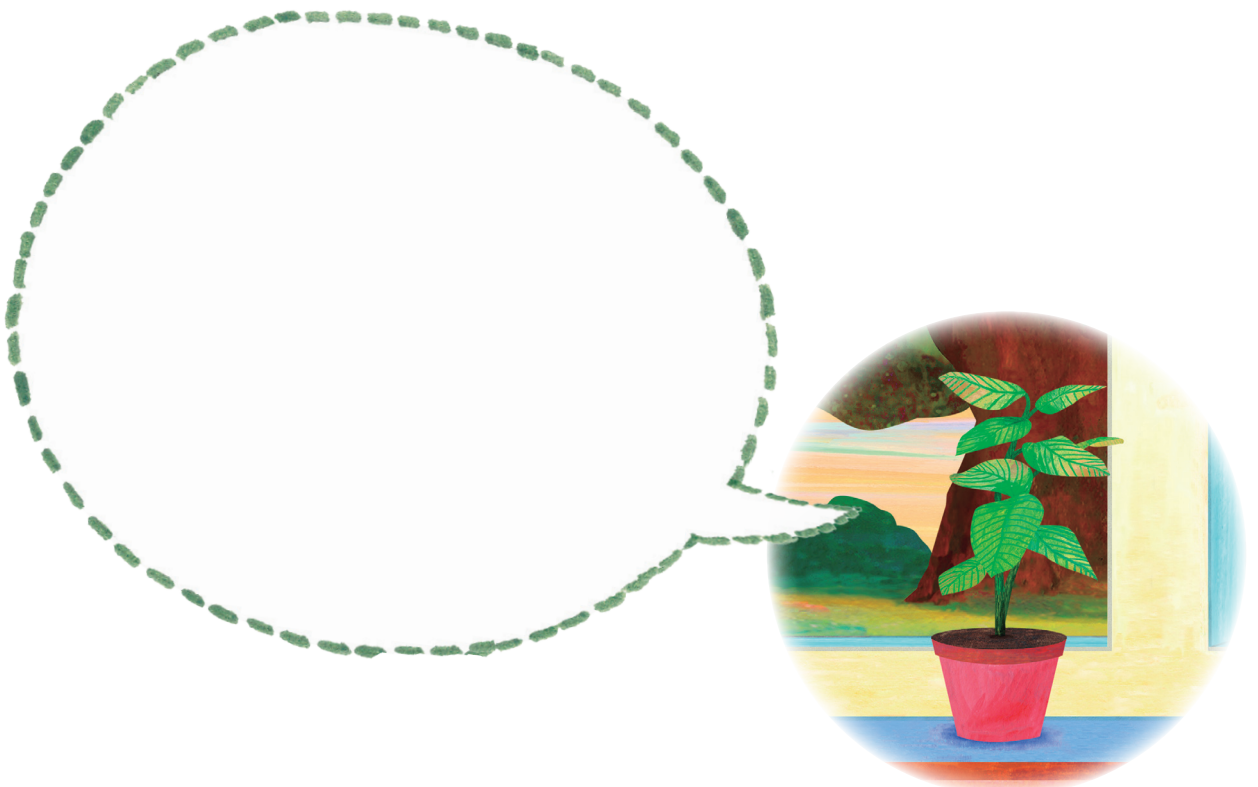


어린나무와 이야기해요.

그림책의 소녀는 매일 어린나무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린나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그리고 어린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대답을 듣고 싶나요? 말풍선 안에 써 보세요



*원 안에 내 얼굴을 그려요!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이제 또 다른 씨앗들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야.”
그림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예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짧게 이야기를 짓고, 그림도 그려 보세요.
